

# 동북아 소수민족의 얼굴특성 분석

## Face characteristics of ethnic minority in north-east asia

조용진(한서대학교 보건학부 미용학과, chouyj@empal.com,  
한서대학교 부설 얼굴연구소장)

### 가. 머리말

우리는 생활 중의 경험을 통하여 사람의 얼굴에 민족차나 지역차가 있음을 알고 있다. 만일 얼굴에 민족차나 지역차가 있다면, 이것은 단지 그 민족 지역인의 표정의 차이뿐만 아니라, 얼굴이 가진 해부형태학적인 차이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해부형태학적 차이는 그 원인이 유전적 차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용모의 특징을 통하여 그 민족, 지역민의 유전적 유래, 즉 기원과 친소관계에 대하여 유추할 수 있는 생물학적 단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한국인의 기원과 유전적 조성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원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은 어디서 기원하여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떤 경로와 원인 영향으로 변화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를 아는 일은 하나의 지적호기심을 초월하여 정책, 사회, 문화면에서 큰 의미를 창출하는 기본원리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경성학파의 일본인 해부학자들은 한국인 포함 약 2만 명에 대하여 형질인류학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많은 연구결과를 내었는데, 한국인을 남방계와 북방계형의 2개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이 논문들은 해방에 이은 남북분단 이후 상당히 반감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혼혈인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자주 대두하여 민족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가치의 우열이 식자층의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 얼굴연구가 이런 인문학적인 가치문제에 대하여도 판단의 근거를 일부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자는 1986년도부터 한반도의 서울을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한국 내, 아시아 각 지역 및 지표상의 지역용모의 특징을 조사해 오고 있는바, 한반도 내의 용모의 지역차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한반도 내 용모의 지역차는 적어도 이미 신석기시대로부터 소급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자가 복원한 통영 앞바다의 6천년 전 연대도인(煙臺島人)의 용모특징은 현재의 경남지역인에게 다른 지역 보다 많이 남아 있으며, 2천년 전 경남 사천 앞 바다 늑도인의 용모 역시 현재의 인근 주민에게 광범하게 잔존하고 있다. 또한 2,300여년 전의 충북 제천의 황석리인(黃石里人) 역시 현재의 지역민에게 그 용모상의 특징이 계승되어 있고, 6세기의 부여 능산리인의 특징은 인근 천안지역의 주민에게 많다. 또, 한반도의 용모의 지역차가 주변민족의 용모차와 연관성이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동북지방인은 한반도의 북부와 내륙지방인과 공유특징이 많고, 한반도 동남해안과 서남해안의 주민은 순다열도의 주

민과 동남아시아인의 용모와 공유점이 많고 동북해안의 주민의 특징은 사할린원주민까지 다다른다는 사실은 현재의 한국인 용모의 지역차가 이들 주변민족의 용모와 연관 있음을 의미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얼굴이 닮았다는 것은 얼굴의 부품을 이루는 이목구비의 모양이 닮았다는 사실 외에, 이들간 거리와 간격이 유사하고, 이마, 뺨 등의 3차곡면상이 닮았다는 세 가지 사실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요인 역시 큰 틀은 유전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얼굴에서 자연환경이나 음식, 생활습관 등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는 비만 등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을 제거하고 비교하면 유전적 친연도에 의하여 민족간의 친소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과 동북아 소수민족은 어떤 관계인지, 또한 이들은 중국인 일본인과는 우리와 상대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찾아내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나. 재료 및 방법

연자는 한국인의 형성루트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 소수민족의 얼굴을 비교분석하기로 하고 다음의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자가 2002년 수집한 아무르강 하안의 길약(니프히), 에벤키, 오로치, 나나이족과 사할린 북부 내륙의 코리악족 각 약 50-60인의 얼굴과 이르크츠크 인근의 부리아트인 약 60인의 얼굴 및 2005년 수집한 동부리아트인 약 100명의 얼굴 및 두부에 대하여 형질인류학적 측정을 시행하고, 이들의 얼굴에 대하여 105mm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로 182cm 거리에서 정면과 측면을 촬영한 사진과, 이들 얼굴에 대하여 휴대용 2mm 등고선 촬영장치를 제작하여 촬영 비교하였고, 관찰연구를 병행하였다.

## 다. 성적

1. 관찰결과 : 육안적 관찰로 얻을 수 있는 용모상의 특징은 발제선의 형, 눈썹의 농도, 쌍꺼풀의 유무, 코와 귀의 연골부의 모양, 피부의 결 등 많다. 동북아 소수민족은 등근발제선, 가는모발, 흐린 눈썹, 쌍꺼풀 없는 눈, 뾰족한 코끝, 귓볼 없는 귀를 가진 이가 절대적으로 많다.
2. 형질인류학적 측정결과 : 환경의 영향이 적게 미치는 부위라고 여겨지는 두장, 두폭, 두이고, 얼굴길 이와 폭, 동공간 거리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이들은 전두부가 좁으며, 두이고가 높은 고구마두상이 많고, 얼굴이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3. 등고선사진 분석결과 : 얼굴의 요철에도 유형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북반구지역인의 얼굴이 평탄하고, 남부지역인은 요철이 뚜렷한 얼굴이 많은데 이들 동북아 소수민족의 얼굴은 평탄한 형이 많으며 이런 모든 사실은 또한 한국인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하다.

## 라. 고찰 및 결론

얼굴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유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얼굴 속에는 그 민족의 유전적 정보가 담겨있다. 그러므로, 얼굴을 비교하면 동북아 소수민족과 한국인과의 유전적 친소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친소관계를 추출하는 방법으로는 각 측정항목의 값을 한국인얼굴의 각부 측정값과 가감한 값을 비교하여 계량적으로 찾을 수 있다. 즉, 동북아 소수민족 얼굴= $a$ , 한국인 얼굴= $b$ , 동남아 민족의 얼굴= $c$  인 경우,  $(a-b)$ 의 값이  $(c-d)$ 의 값보다 작으면 한국인 얼굴은 동남아인 보다는 동북아인에 더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동북아소수민과 한국인 동남아인을 비교하여 부등호로 표시하면 (동북아 소수민족 얼굴-한국인 얼굴) < (동남아 민족의 얼굴-한국인 얼굴)이 되고, 다른 방식으로 동북아 소수민족과 한국인을 교집합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동북아 소수민족 얼굴  $\cap$  한국인 얼굴) < (동남아 민족의 얼굴  $\cap$  한국인 얼굴)이다.

이런 결과로 볼 때, 동북아 소수민의 얼굴은 현재의 한국인 얼굴에 더 가깝고 동남아인과는 멀며, 역으로는 한국인 얼굴은 현재의 동남아인 보다 동북아소수민족의 얼굴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동북아소수민족의 특징은 서쪽으로는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서부리야트인에 까지 이른다. 이런 사실은 또한 한국인의 형질이 동남아인 보다는 바이칼호 서쪽에 이르는 북방의 제 민족과도 친연성이 큼을 의미하는 증거라고 생각된다.